한국금융교육학회 2024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24년 2월 pp. 23~3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 분석*

이강현** · 장경호***

요 약

본 연구는 경제 또는 실용 경제 과목 선호 또는 수강 여부에 따른 금융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경제 또는 실용경제 과목을 선호하고 경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일수록 금융이해력 중 금융지식이 높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용경제 과목 수강 여부는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가장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금융지식이 높았으며, 해당 요인들은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행위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돈을 관리하고, 본인 명의 통장이 있으며, 미래 성인기 구체적 자금 계획을 가질수록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금융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금융태도 측면에서는 저축을 신뢰할수록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금융교육, 금융이해력, 교육과정

* 본 연구는 이강현의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인천 가정고등학교 교사(anom815@gclass.ice.go.kr).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kjang@inha.ac.kr). 교신저자.

Ⅰ.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금융 감독 기구 개편과 부실 금융사 정리 및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Dodd-Frank법을 근거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개설하여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이윤호, 2021). 캐나다 또한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융합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김재근, 2021). 한국은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틀에 해당하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제정(김정호 외, 2010) 및 개정[1]하는 한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2008년을 기점으로 금융교육을 적극 도입하고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경제, 실용경제 등의 과목 수강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교육의 목표이자 핵심역량인 금융이해력을 실제 함양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으로 혼용하기도 한다. 금융이해력에 대한 여러 정의를 범주화한다면, 금융지식적 측면, 습득한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측면,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2003년에 Jump$tart의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10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금융감독원도 KDI 문항과 금융감독원 자체 개발 문항, OECD PISA의 문항을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금융이해력 평가 문항을 제작하였다(오영수, 2015).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격년에 맞춰 실시하는 금융이해력 조사는 OECD의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제작한 것이며 오영수·곽영일(2015), 이윤호(2019), 김동진·김지훈(2021)등 국내 금융이해력 관련 연구에서도 해당 측정 도구를 직접 활용했거나 문항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 다른 측정 도구와 적절하게 혼합하여 활용하였다. Jump$tart나 CEE 또는 연구자의 자체 개발 문항을 활용한 국내 연구도 많은데 최현자·조혜진(2011), 김민정 외(2012), 장경호(2021) 한진수·장경호(2022)의 연구가 이에

1) 2020 개정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

해당한다.

금융이해력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학교 금융교육,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력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학교 금융교육에 관심을 두고 고등학교 경제 또는 실용경제 수강 여부가 금융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조사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결론을 도출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조사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금융이해력 문항은 OECD INFE(2011)의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22년 개발·실시한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조사>와 한진수·장경호(2022)의 연구에서 활용한 CEE TFL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문항을 선정하였고 <2020 개정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체계를 참조하여 문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경제 또는 실용경제 수강 여부가 금융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등학교 경제와 실용경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활용하여 문항을 추가하여 총 20개의 금융 지식 측정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외에 금융 행위와 금융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10개와 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해 9개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 조사에 따른 윤리성 확보를 위해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하대 IRB)의 승인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교 분석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ANOVA분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경제 또는 실용경제 과목 수강 여부, 사회과 선택과목 선호 여부 등이 금융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특징

청소년기에 함양한 금융이해력이 성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오영수·곽영일(201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이뤄진 금융교육과 이를 통한 금융이해력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23년 10월 23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약 2주간, 인천광역시 관내 6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금융 태도와 금융 이해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과정에는 연구자의 직접적 개입이나 완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고 고려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당 교사의 감독하에 고등학교 1차시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는 성별, 직전 학기 내신 평균 등급, 수강한 사회과 선택과목 등 응답자 기본 특성을 분류하는 문항에 무응답 또는 명확하지 않은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264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특성은 <표 1>과 같이 남학생이 136명으로 여학생 128명보다 다소 많았다. 내신 성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가장의 최종 학력도 여학생의 경우에 더 높았다. 경제 과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용경제 과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금융 이해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절반 이상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특징으로 눈여겨볼 것은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61.7%, 61.4%, 48.1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을 수강한 학생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선택률을 보이는 생활과 윤리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인 58.7%보다 높다. 또한 경제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도 48.1%로 절반에 가깝다. 이는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 표집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본 연구에서 경제 또는 실용 경제에 대한 수강 여부가 금융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만큼 경제 또는 실용 경제를 개설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학교에서도 조사 대상에 경제 또는 실용경제를 수강한 학생을 절반에 가깝게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무작위 표집 과정이 이루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경제 또는 실용 경제의 수강 여부, 즉 고등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이 경제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집 과정의 한계가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조사 대상의 특징

구분		남학생 수 (비율, %)	여학생 수 (비율, %)	소계 (비율, %)
응답자		136(51.5)	128(48.5)	264
내신 등급	1~2등급대	16(11.8)	37(28.9)	53(20.1)
	3~4등급대	44(32.4)	57(44.5)	101(38.3)
	5등급 이상	76(55.9)	34(26.6)	110(41.7)
가장 최종 학력	대학원졸 이상	6(4.4)	11(8.6)	17(6.4)
	대졸(전문대 포함)	42(30.9)	71(55.5)	113(42.8)
	고졸	69(50.7)	29(22.7)	98(37.1)
	중졸 이하	19(14.0)	17(13.3)	36(13.6)
가장 의 직업	사업가	25(18.4)	23(18.0)	48(5.3)
	생산직	53(39.0)	40(31.3)	93(28.0)
	사무직	47(34.6)	49(38.3)	96(49.2)
	기타	10(7.4)	13(10.2)	23(15.9)
	무직	1(0.7)	3(2.3)	4(1.5)
가정 형편	상	5(3.7)	9(7.0)	14(5.3)
	중상	36(26.5)	38(29.7)	74(28.0)
	중	68(50.0)	62(48.4)	130(49.2)
	중하	26(19.1)	16(12.5)	42(15.9)
	하	1(0.7)	3(2.3)	4(1.5)
금융 이해 력 자기 평가	매우 우수	9(6.6)	7(5.5)	16(6.1)
	우수	25(18.4)	22(17.2)	47(17.8)
	보통	68(50.0)	78(60.9)	146(55.3)
	미흡	30(22.1)	20(15.6)	50(18.9)
	매우 미흡	4(2.9)	1(0.8)	5(1.9)
사회 과 선택 과목 수강	경제	77(56.6)	50(39.1)	127(48.1)
	정치와 법	95(69.9)	67(52.3)	162(61.4)
	사회·문화	78(57.4)	85(66.4)	163(61.7)
	생활과 윤리	75(55.1)	75(58.6)	150(56.8)
	윤리와 사상	85(62.5)	73(57.0)	158(58.7)
	한국 지리	45(33.1)	35(27.3)	80(30.3)
	세계 지리	54(39.7)	35(27.3)	89(33.7)
	동아시아사	16(11.8)	20(15.6)	36(13.6)
	세계사	47(34.6)	27(21.1)	74(28.0)
	사회 문제 탐구	42(30.9)	74(57.8)	116(43.9)
	여행 지리	19(14.0)	20(15.6)	39(14.8)
	실용 경제	21(15.4)	44(34.4)	65(24.6)

<표 1> 조사 대상의 특징 (계속)

구분			남학생 수 (비율, %)	여학생 수 (비율, %)	소계 (비율, %)
과목 선호 순위	1 순위	경제	31(23.7)	30(23.6)	61(23.6)
		정치와법	27(20.6)	22(17.3)	49(19.0)
		사회·문화	16(12.2)	20(15.7)	36(14.0)
		생활과윤리	17(13.0)	13(10.2)	30(11.6)
		윤리와사상	14(10.7)	12(9.4)	26(10.1)
		한국지리	8(6.1)	4(3.1)	12(4.7)
		세계지리	4(3.1)	8(6.3)	12(4.7)
		동아시아사	3(2.3)	5(3.9)	8(3.1)
		세계사	9(6.9)	5(3.9)	14(5.4)
		사회문제탐구	0(0)	3(2.4)	3(1.2)
		여행지리	0(0)	3(2.4)	3(1.2)
		실용경제	2(1.5)	2(1.6)	4(1.6)

주 1) '응답자'외 구분에서 표기하는 괄호 안 비율은 전체 남학생 또는 여학생 집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진한 글씨는 해당 구분 내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주를 나타냄

3)'응답자'외 구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집단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주를 진한 글씨로 표기함

Ⅲ.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

본 연구 측정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78로 나타났다. CEE TFL의 Cronbach's Alpha 값이 0.89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Kaiser-Meyer-Olkin(KMO) 측도값은 0.880으로 0.6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유의수준보다 작아, 타당도 또한 양호하였다.

금융지식 평균 점수를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본집단 전체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 중 11.57점을 나타냈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57.85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은 11.0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았고, 여학생은 12.1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별 금융지식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학생 수	검정통계량 (t 또는 F값)
전체		11.57	5.25	264	-
성별	남학생	11.08	4.90	136	t= -1.581[e]
	여학생	12.10	5.58	128	
경제 수강	수강생	13.37	5.22	127	t= 5.642[e,***]
	미수강생	9.91	4.73	137	
실용 경제 수강	수강생	14.12	5.04	65	t= 4.673[e,***]
	미수강생	10.74	5.06	199	
직전 학기 내신 평균	1~2등급대	15.32[a]	5.03	110	F= 43.139[***]
	3~4등급대	12.76[b]	4.14	101	
	5등급 이상	8.68[c]	4.72	53	
가장 최종 학력	대학원졸	15.47[a]	1.19	17	F= 9.346[***]
	대졸(전문대 포함)	12.70[ab]	.45	113	
	고졸	10.35[b]	.46	98	
	중졸 이하	9.5[b]	1.09	36	
가장 직업	사업가	11.93[ab]	5.58	48	F= 6.321[***]
	생산직	10.88[ab]	4.38	93	
	사무직	13.30[a]	4.83	96	
	기타	6.56[b]	5.77	23	
	무직	10.75[ab]	7.45	4	
가정 형편	상	13.57[a]	2.04	14	F= 14.758[***]
	중상	12.75[a]	.53	74	
	중	11.74[a]	.44	130	
	중하	8.97[ab]	.74	42	
	하	4.5[b]	2.87	4	
주관적 금융 이해력	매우 우수	15.81[a]	3.90	16	F= 14.758[***]
	우수	15.25[a]	3.98	47	
	보통	10.88[ab]	4.76	146	
	미흡	9.60[b]	5.53	50	
	매우 미흡	8.98[b]	6.69	5	

주 1) * < 0.10, ** < 0.05, *** < 0.01

2) 진한 글씨는 해당 구분 내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범주를 나타냄

3) 검정통계량 t의 첨자 e와 u는 각각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 따라 등분산과 이분산의 가정하에 t검정을 실시하였음을 의미함

4) 평균의 첨자 알파벳 소문자는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집단을 평균의 내림차순으로 나타낸 것임. 동일한 첨자를 공유하는 집단은 유의수준 5%에서 서로 차이가 없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경제 또는 실용경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직전 학기 내신 평균 등급, 가장의 최종학력, 가장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도 금융지식 평균 점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금융행위 항목 응답을 바탕으로 집단을 나누어 금융지식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평소 가족과 금융 관련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는 14.76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는 13.86점이었다. 대화가 적어질수록 금융지식 평균 점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3> 금융 행위와 금융 지식

구분		평균 점수	표준편차	학생 수	검정통계량 (t 또는 F값)
평소 가족 간 금융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14.76[a]	5.11	17	F= 6.786[***]
	그렇다	13.87[ab]	4.98	45	
	보통이다	11.66[abc]	5.53	90	
	별로 그렇지 않다	10.29[bc]	4.34	79	
	전혀 그렇지 않다	9.31[c]	4.73	26	
한달 평균 용돈	5만 원 미만	9.75[b]	4.41	55	F= 3.071[**]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	11.93[ab]	5.13	122	
	15만 원 이상 ~ 25만 원 미만	12.40[ab]	5.08	50	
	25만 원 이상 ~ 35만 원 미만	14.33[a]	5.77	9	
	35만 원 이상	12.47[ab]	5.92	19	
본인 명의 통장	있음	11.96	4.97	233	t= 2.254[u,**]
	없음	8.39	6.57	18	
본인 명의 금융 상품	있음	14.09	5.08	58	t= 4.011[u,***]
	없음	11.07	4.94	202	
한 달 여유 자금	있음	12.86	5.07	122	t= 3.377[c,***]
	없음	10.75	4.97	138	
미래의 구체적 자금계획	있음	12.92	4.82	158	t= 4.827[c,***]
	없음	9.91	5.05	102	

주 : <표 2>의 주와 같음

한 달 평균 용돈은 25만 원 이상 ~ 3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14.33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표본 수가 해당하는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의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는 11.92점으로 생각보다 낮았는데 이는 '금융지식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돈 수준의 적정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인 연구 가능성을 제공한다.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에 따라서도 25만 원 이상 ~ 3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유할수록, 본인 명의의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상품을 보유할수록, 한 달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을수록, 미래 성인기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금융태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금융지식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식집에서 돈이 부족한 경우 '사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 카드 사용', '친구에게 돈을 빌림', '가게에 외상' 응답 순이었다. 그러나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로는 이러한 차이가 집단 간에 유의하지는 않았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동의하는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와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학생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는 다른 응답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다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명이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답변에 대한 ANOVA분석을 실시하였어도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저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다른 응답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축을 신뢰하고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금융지식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한다.

<표 4> 금융 태도와 금융 지식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학생 수	검정통계량 (t 또는 F값)
분식집에서 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 카드 사용	10.50[a]	5.47	48	F= 3.583
	친구 돈을 빌림	8.96[a]	4.20	23	
	가게에 외상	8.40[a]	5.13	5	
	사 먹지 않음	12.49[a]	4.95	183	
돈은 쓰기 위한 것	매우 동의한다	10.24[ab]	5.27	54	F= 3.583***
	동의한다	12.57[a]	4.83	141	
	보통이다	10.89[ab]	5.78	38	
	동의하지 않는다	12.17[a]	4.13	2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67[b]	5.69	3	
소비보다 저축 선호	매우 동의한다	11.88[a]	5.53	51	F= 3.789*** (F=4.262)[1)]
	동의한다	12.65[a]	4.71	132	
	보통이다	10.15[a]	5.30	55	
	동의하지 않는다	9.79[a]	4.94	1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0	-	1	
저축 없이도 잘 살 수 있음	매우 동의한다	8.00[c]	4.63	11	F= 8.630***
	동의한다	9.51[abc]	4.44	37	
	보통이다	9.18[bc]	5.59	34	
	동의하지 않는다	12.72[ab]	4.54	11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26[a]	5.24	62	

주 : <표 2>의 주와 같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제 및 실용경제 과목 수강 여부와 선호 여부, 특정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가 금융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설명변수 중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성별, 성적, 가장의 최종학력, 가장의 직업, 가정의 경제 형편,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해당한다.

성별, 가장의 직업, 경제와 실용경제 수강 여부, 과목 선호 여부는 각각 남학생, 직종별, 경제 및 실용경제 수강, 경제 및 실용경제 선호를 기준으로 측정한 더미변수이고, 성적은 1~2등급이 3점, 3~4등급이 2점, 5등급 이하를 1점으로

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집단의 표본 수가 1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답변 집단 간 ANOVA분석 결과이다. 이에 따른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나머지 4가지 답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해당 집단 각 평균의 첨자 알파벳으로 나타냈다.

측정, 가장의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1점, 고졸 2점, 대졸 3점, 대학원졸 이상을 4점으로 측정, 가정의 경제 형편은 하~상 순으로 각각 1~5점으로 측정,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매우 미흡하다~매우 우수하다 순으로 각각 1~5점으로 측정한 변수이다.

금융행위에 해당하는 가족 간 금융 대화 빈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각각 1~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용돈 수령 방식, 용돈 저축 방식,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 본인 명의 금융 상품 보유 여부, 한 달치 여유 자금 보유 여부, 미래 성인기 자금 계획 여부는 각각 수령 방식별, 저축 방식별, 통장 보유, 금융 상품 보유, 여유 자금 보유, 계획 보유를 기준으로 측정한 더미변수이다.

금융태도에 해당하는 분식점에서 돈 부족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응답별로 측정한 더미변수이고, 돈이 쓰기 위해 존재하는지 동의 여부, 저축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지 동의 여부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각각 1~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소비보다 저축 선호 여부는 이와 반대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1~5점으로 측정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의 금융지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은 <표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767, P <.001)[3], 본 분석의 설명력은 약 52.6%(수정된 R제곱)로 나타났다(R^2=.594, $_{adj}R^2$=.526). 그 결과 성적, 주관적 금융이해력, 경제 수강 여부, 경제 또는 실용경제 선호여부가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의 직전학기 내신 평균 등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경제를 수강하고 경제와 실용경제를 선호할수록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장경호(2021), 한진수·장경호(2022)의 연구와는 대비되는 본 연구의 결과로 경제 과목 수강이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금융이해력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별, 가장의 최종학력, 가장의 직업, 가정 경제 형편, 실용경제 수강 여부는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실용경제 과목 수강 여부는 그동안 이루어진 금융이해력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과목 수강 여부와는 상반되는 결과의 이유로는 첫째, 경제 과목이

3) P값이 .05보다 작은 .001이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과 선택과목에 비해 보통 상위권 문과[4] 학생들이 선택하고 등급이 산출되므로 어느 정도 꾸준한 학습이 이뤄지는 반면, 실용경제는 절대평가(Pass/Fail)가 적용되는 교양선택 과목이므로 실제 수강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노력이 경제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 둘째, 실용경제 수강생 중 상당수가 일정 단위의 문과 계열 과목을 명목상 수강해야만 하는 이과 학생들이므로 경제 및 금융 배경지식과 관심이 문과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용경제 과목의 모든 단원이 금융 내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다면, 금융이해력 함양에 도움을 주는 금융 내용 전담 과목 신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행위에 있어서는 저축을 하는 것과 미래 성인기 자금 계획이 있는 것, 본인 명의 통장을 보유가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저금통에 저축을 하거나 은행 예·적금을 이용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축을 하는 것은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래 성인기 구체적 자금 계획을 가질수록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저축과 미래 금융 계획이 바람직한 금융이해력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 간 금융 대화 빈도, 본인 명의 금융 상품 보유, 한 달치 여유 자금 보유는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기할 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용돈을 받든 금융지식에 부(-)의 영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금융이해력 함양에 있어서 용돈의 출처보다는 용돈 획득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금융교육의 초점을 자금 관리 부분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태도에 있어서는 저축없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가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저축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분식점에서 돈이 부족할 때 가져야 할 태도,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지 여부는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상 학생들의 문·이과 구분은 명목적으로 없으나,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문과와 이과는 각각 문과 성향을 지니고 문과 계열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주로 사회탐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과 이과 성향을 지니고 이과 계열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주로 과학탐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표 5> 고등학생의 금융 지식 결정 요인 분석

설명 변수		*B*	*S.E.*	*β*	*t*	비고
상수		-24.931	16.237	-	-1.535	-
성별		3.778	2.953	0.074	1.279	남=1, 여=0
성적		11.386	3.153	0.219	3.612***	1~2등급=3, ~4등급=2, 5등급 이하=0
가장 최종 학력		0.891	1.849	0.028	0.482	대학원졸 이상=4, 대졸(전문대 포함)=3, 고졸=2, 중졸 이하=1
가장 직업	사업가	13.264	11.724	0.200	1.131	사업가=1, 그외=0
	생산직	9.716	11.546	0.183	0.841	생산직=1, 그외=0
	사무직	13.017	11.540	0.243	1.128	사무직=1, 그외=0
	기타	-9.400	12.166	-0.105	-0.773	기타=1, 그외=0
가정 경제 형편		-1.235	1.963	-0.039	-0.773	하~상 각각 1~5로 측정
주관적 금융이해력		5.663	2.005	0.189	2.824***	매우미흡하다~매우우수하다 각각 1~5로 측정
경제수강		5.508	3.207	0.108	1.718**	수강=1, 미수강=0
실용경제 수강		3.396	3.337	0.058	1.018	수강=1, 미수강=0
과목 선호		5.682	3.713	0.098	1.531***	경제, 실용경제 선호=1, 미선호=0
가족 간 금융대화		0.563	1.454	0.023	0.387	전혀그렇지않다~매우그렇다 각각 1~5로 측정
용돈 수령	필요시	-10.822	4.382	-0.208	-2.470**	필요할 때 받음=1, 그외=0
	규칙적	-10.976	4.530	-0.212	-2.423**	규칙적 받음=1, 그외=0
	명절	-14.013	11.954	-0.062	-1.172	명절, 집안일 대가=1, 그외=0
	아르바이트	-25.485	7.993	-0.182	-3.188***	아르바이트=1, 그외=0
용돈 저축 방식	저금통	12.941	4.971	0.220	2.603**	보관=1, 그외=0
	은행	11.437	4.823	0.216	2.371**	저축=1, 그외=0
	투자	19.872	11.041	0.101	1.800*	투자=1, 그외=0
본인명의 통장		17.630	5.168	0.175	3.411***	있음=1, 그외=0
본인명의 재형성 상품		0.940	3.937	0.016	0.239	있음=1, 그외=0
한달 여유 자금		0.548	2.891	0.011	0.190	있음=1, 그외=0
성인 자금 계획	은행 저축	10.003	3.587	0.181	2.788***	저축=1, 그외=0
	금융 상품 투자	13.814	3.963	0.210	3.486***	투자=1, 그외=0
	부동산 투자	13.941	4.168	0.188	3.345***	투자=1, 그외=0

<표 5> 고등학생의 금융 지식 결정 요인 분석(계속)

설명 변수		*B*	*S.E.*	*β*	*t*	비고
돈부족시	부모님 카드	-0.754	3.327	-0.012	-0.227	부모님 카드=1, 그외=0
	친구돈 빌림	-0.709	4.696	-0.008	-0.151	빌림=1, 그외=0
	외상	0.452	11.166	0.002	0.040	외상=1, 그외=0
돈은 쓰기 위한 것		-0.585	1.453	-0.021	-0.403	매우동의한다~전혀동의하지 않는다 각각 1~5로 측정
소비보다 저축 선호		0.012	1.622	0.000	0.008	전혀동의하지 않는다~매우동의한다 각각 1에서 5로 측정
저축없이 잘 살 수 있음		4.629	1.300	0.200	3.560***	매우동의한다~전혀동의하지 않는다 각각 1~5로 측정

주 1) * < 0.10, ** < 0.05, *** < 0.01

2)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를 나타냄

Ⅳ. 결론

본 연구 결과 직전학기 내신 평균 등급이 높을수록, 가장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 형편이 좋을수록, 경제와 실용경제를 선호하고, 경제를 수강한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교적 금융지식이 높았으며, 요인적 측면에서도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경호(2021), 한진수·장경호(2022)의 연구와 상반된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 수강이 상당히 지난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금융이해력에 있어서 경제 과목이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라는 점에 함의가 깊다. 그러나 실용경제 과목 수강 여부는 금융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융행위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돈을 저축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으며, 미래 성인기 구체적인 자금 계획은 가지고 있을수록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경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오영수·곽영일(2015)의 연구와 같은 변수로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평소 자신의 경제적 상황

과 금융 계획에 관심이 많다면 금융이해력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용돈을 수령하든 금융지식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점과 한 달 평균 용돈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인 학생들의 금융지식 평균 점수가 이외 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인데, 이는 각각 바람직한 금융이해력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기 용돈 수령방식과 적절한 수준의 용돈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융태도 측면에서는 저축을 신뢰할수록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오영수·곽영일(2015), 이윤호(2015), 장경호(2021), 장경호·한진수(2022) 등의 금융이해력 결정 요인에 관한 다수 선행연구를 본받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그동안은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진행 중인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경호(2021), 한진수·장경호(2022)의 연구와 달리 적어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는 금융이해력 함양에 경제 과목 수강이 중요하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동진·김지훈(2021).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28(3), 119-144.

김민정·이희숙·김효심·곽민주(2012). 개인재무관리 관련 교양과목의 대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에 대한 효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4), 71-91.

김재근(2021). 캐나다 금융교육의 현황 및 사례. **경제교육연구**, 28(1), 1-26.

김정호·권유진·김경모·박영석·차경욱·천규승·한경동·김지영(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CRC 2010-22. 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영수·도규태(2005).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도와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향 탐구. **중등교육연구**, 53(1), 283-300.

오영수(2015). 금융감독원의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평가도구의 적정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22(2), 71-97.

오영수·곽영일(2015). 대구지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결정 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3(2), 233-251.

이소연·권유진·김재근·김태환·한진수·박형준(202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연구**. 연구보고 CRE 2020-2. 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윤호(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비교 분석. **경제교육연구**, 22(3), 91-122.

이윤호(2019b). 금융이해력 조사의 연령대별 문항 분석과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시사점. **경제교육연구**, 26(3), 1-32.

장경호(202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태도 분석. **경제교육연구**, 28(2), 85-103.

장경호·한진수(2022).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번역 편이 분석. **경제교육연구**, 29(2), 203-225.

최현자·조혜진(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2(4), 55-75.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C01&conn_path=I2에서 2023.12.6. 인출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2). **보도자료: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한진수(2013). 한국과 미국 초등학생의 경제 이해력 비교. **시민교육연구**, 45(1), 125-146.

한진수(2018). 2015 개정 금융교육 교육과정의 분석과 개선안 모색. **금융감독연구**,

5(1), 39-66.

한진수·장경호(2022).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54(2), 69-88.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2013).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 New York: CEE.

OECD(2014). "*PISA 2012 Financial Literacy*". http://www.oecd.org

OECD INFE(2011).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Paris: OECD.

Walstad, W. B., K. Rebeck, and R. A. MacDonald(2010). The Effects of Financial Knowledg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4(2), 336-357.

MEMO

2024 한국금융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